

“The model for Europe and Latin America Chapter meetings”

Meaning of the Asian Chapter Meeting
told by Sarah Gardner, Executive Director of the IFACCA

What was the major momentum that brought about the establishment of IFACCA? What kind of organizations in which countries made efforts to organize it? What made them play their leading rol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FAC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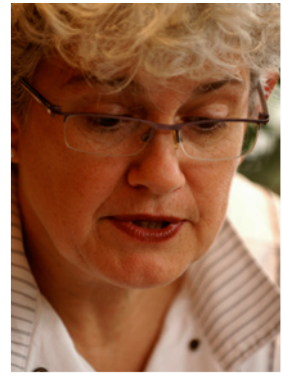
During the 1990s I was working at 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s the Director of Strategy and Policy. It seemed difficult to find information about what arts funding agencies in other countries were doing and, despite the rapid growth in the internet and web sites, it was difficult to know whom to contact in other countries to find this information. As a result, it seemed to me that some type of network of arts councils would help us all know more about each other's research and activities. I discovered that the Canada Council was planning to host the First World Summit on the Arts and Culture in Ottawa in late 2000 and had invited arts councils from around the world to attend. The Canada Council was equally enthusiastic about creating a network and invited me to prepare and

present a formal proposal at the conclusion of the World Summit. The Australia Council agreed to me undertaking a feasibility study about creating a network and a report on the study was sent to delegates prior to the Summit. At the Summit, the delegates, representing 55 countries, supported the proposal unanimously and agreed to an interim board. The following March, I left the Australia Council and set up the secretariat and we have grown since then. Within the first year about 30 countries had expressed interest in joining and of these about ten provided substantial financial support.

The purpose of the Federation wa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best-practice in the administration of arts funding and to investigate areas of concern such as the arts and young people,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cultural diversity, sustainability of the arts sector, and the interaction between artists and the community. By the time the first General Assembly was held in November 2003,

Sarah Gardner

Executive Director, IFACCA
사라 가드너, IFACCA 사무총장



42 countries had become 'founding members' of IFACCA.

What are the major activities of the IFACCA? How does the IFACCA play its key role in those activities?

The primary aim of Federation, the global network of national arts funding bodies, is to share information and expertise of benefit to artists, art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an information-rich web site www.ifacca.org, an online arts policy bulletin called 'ACORNS' and conduct regular research on matters of interest to government arts funders. We also organize face-to-face meeting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ranging from mini-summits to the 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 the next of which will be in Johannesburg next year. We also partner other agencies in organizing events, projects and research that meets our objectives. For example, the database of experts in cultural policy www.connectcp.org. The key to all these events is the support we receive from our members in providing information, hosting events and financially contributing to the secretariat.

You have supported the Asian Chapter's operation from the beginning by keeping pace with its advancement.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ritical values of the Asian Chapter?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sian Chapter will eventually enhance the network for cultural understandings among nations, what points do you think should be noted the most for a successful collaboration among Asian Chapter members?

The Asian Chapter provides a unique forum for leaders of arts funding agencies to exchange information in an informal setting. Whether they are from Arts Councils or from Ministries of Culture, the people who attend the meetings are helping to build networks and to create a free flow of information in whatever way is appropriate for their country. Other networks exist at the Ministerial level or in the broader cultural realm but this network is unique in considering ways for governments to best support the contemporary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and exploring the role of the arts in our everyday lives. Networks like the Asian Chapter need energy and support and so the contributions of its members have been very important in sharing information, providing leadership, attending the meetings and of course (like ARKO) in generously hosting meetings.

Through the past meetings in Hong Kong and in Mongolia, what do you think Asian Chapter has achieved? Are there any unique accomplishments

in Asian Chapter meetings in comparison with the overall IFACCA member countries' activities?

The meetings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leaders of arts funding bodies to meet each other and come to understand more about different strategies for supporting the arts as well as the different government structures and cultures in each country. Their discussions have helped to explore best practice in arts policy making and the role of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The Asian Chapter meeting is the longest-running and most active of the Chapters and has established the model for other regions such as Europe and Latin America.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IFACCA, what do you expect to see from the 6th Asian Chapter Meeting in Seoul?

There are many topics under discussion at the Seoul meeting, ranging from arts advocacy to models of government support. Delegates are preparing reports on their countries to present at the meeting so I expect we will all learn a great deal from each other and think in new ways as a result of this exchange. We will also all have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Korean arts and culture and to create ongoing connections within the region.

“아시아 지역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의 모델”

사라 가드너 사무총장에게 듣는 IFACCA 아시아 지역회의의 의미

IFACCA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나라의, 어떤 기관들이, 어떤 동기로 IFACCA 설립에 참여했나?

나는 1990년대에 호주 예술위원회의 전략 정책부 부장으로 일했는데, 다른 나라의 기금 지원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인터넷과 웹사이트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누구와 접촉해야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연구나 활동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캐나다 예술위원회가 2000년 말 오타와에 전세계 예술위원회를 초청하여 예술과 문화에 대한 첫번째 세계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캐나다 예술위원회 역시 그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준비하여 오타와 회담에서 건의해 줄 것을 내게 부탁해왔다. 나는 호주 예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술 네트워크 창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고, 세계총회를 앞두고 조사 보고서를 참가자들에게 발송했다. 총회에 참석한 55개국의 대표단은 나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임시 위원회(interim board)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3월, 나는 호주 예술위원회를 떠나 IFACCA의 사무국을 설립했고, 그 이후로 IFACCA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설립 첫 해에만 약 30개국이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이 중 10개국이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IFACCA의 목적은 예술기금 지원의 모범 사례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관심 영역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예술과 젊은이들’,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 ‘예술의 지속가능성’, ‘예술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2003년 11월 첫번째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42개의 국가가 IFACCA의 ‘설립 회원’이 되었다.

IFACCA의 주요 활동은 무엇이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술기금 지원 기관의 세계 네트워크인 IFACCA의 주요 목적은 정보와 전문 기술 공유를 통해 전세계의 예술가와 예술 조직, 사회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 중심의 웹사이트(www.ifacca.org)와 온라인 예술 정책 게시판인 'ACORNS'를 운영하고 정부 예술기금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소회의(mini-summit)와 세계총회(World Summit)를 통해 많은 나라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조직한다. 내년 세계총회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로서 협력하여 우리의 목적에 맞는 행사와 프로젝트, 리서치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문화정책 전문가 데이터베이스(www.connectcp.org)를 들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회원국들로부터 받는 지원들—정보 제공, 행사 개최, 사무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당신은 아시아 지역회의 운영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아시아 지역회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시아 지역회의가 궁극적으로 문화적 이해를 위한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원들 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시아 지역회의는 예술기금 지원 기관들의 리더들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독특한 포럼을 개최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예술위원회 소속이건 문화부 소속이건 간에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게 어떤 방향이 됐든 각 국가에 적합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창조해낸다. 여타의 네트워크들은 정부 차원, 혹은 보다 광범위한 문화 영역에 존재하지만, 아시아 지역회의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동시대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한다는 점, 일상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아시아 지역회의와 같은 네트워크는 에너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를 나누고, 리더십을 제공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기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최한 것처럼 말이다.

홍콩과 몽골에서 치른 아시아 지역회의를 통해 거둔 성과가 있다면? 전체 IFACCA 회원국의 활동에 견주어 아시아 지역회의만의 독특한 성과가 있었는가?

아시아 지역회의는 예술기금 지원 기관의 리더들이 만나 예술 지원을 위한 서로 다른 전략들과 각 나라의 정부 조직과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역회의에서의 토론은 모범적인 예술정책 입안 사례, 커뮤니티 내 예술가와 예술기관의 역할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시아 지역회의는 IFACCA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회의로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의 모델이 됐다.

IFACCA 사무총장으로서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 지역회의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서울 회의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예술의 가치 확산'이나 '정부 지원 모델' 등 많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며, 각국 대표단은 회의에서 발표할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이 교류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 배우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연계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터뷰 및 번역 **임수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